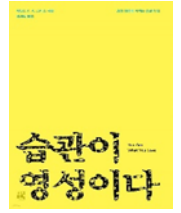


제 4 과. 당신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가?



성경: 히 12:1-2

찬양: 찬 619 장/놀라운 그 이름, 복음송/완전하신 나의 주

기도: 하나님이 오늘 모임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 연구 & 나눔]

1.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억나는 예배는?
(설교를 제외한 순서 중에서)
2.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의 거룩한 여정과 목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1 절에 소개한 ‘나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인지 고백하고 어떻게 벗어 났는지 서로 나눠보자!

I. 예배에 대한 정의(definition) 정리

1. 우리는 예전적 존재이기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투는 경쟁적인 예전들을 인식해야 하며, 그런 다음 재조정과 재습관화의 활동인 기독교 예배, 즉 바르게 질서 잡힌 예전에 헌신해야 한다.
2. 성경은 예배라는 목적 지향적이며 공동체적 의례를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안으로 스며든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성경적 지혜로 인도 받는 백성이 되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 투자는 말씀을 배우기 보다는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확신에 뿌리를 내린 역사적 기독교 예배의 풍성한 유산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3. [대항 형성적인 기독교 예배]는 신체적이며 감각적이고 직감적이어야 한다. 마음에 도달하려면 몸을 통해 가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보를 나눠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대항 형성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상상력을 길러 내는 공간이다.

4. 우리는 기독교 예배의 주기와 리듬을 통해 복음에 관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배운다. 기독교 예배라는 실천에는 우리가 지성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신념이나 교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상력 차원의 복음 이해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

II. 예배가 성품을 만든다.

1. 소비주의 교리문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내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면서 물건을 획득하는 것이다.”

2. 기독교 예배는 번영에 대한 나름의 전망, 단순히 ‘영적’이거나 피안적이거나 몸과 분리된 천국을 지향하지 않는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

창조세계의 ‘샬롬’에 대한 성경적 전망은 ‘천상적’이지만, 이 땅에서 실현되는 천상적 질서에 대한 전망이다.

3.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목적은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예배의 목적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직결된다.

기독교 예배의 목적은 창조명령의 갱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세상으로,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인들의 ‘텔로스’(목적)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구현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바울의 권고 (골 3:14)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권고 (롬 13:14)와 같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정기적으로 몰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다.

Ⅲ. 우리를 회복하는 예배

1. [형성적인 기독교 예배]는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주의 아름다움과 그분이 바라시는 창조세계의 ‘샬롬’에 대한 전망을 그려 낸다.
우리가 자신이 갈망하는 바를 위해서만 행동한다면, 또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바를 갈망한다면, 재형성적 기독교 예배가 우리 상상력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
2. 기독교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대양으로 항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우리 안에 장차 올 나라인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히 11:16)
성경이 그리는 ‘샬롬’, 곧 어린 양이 우리 빛이 되시는 세상,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세상,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세상,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같은 찬양을 부르는 세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은 기독교 예배에서 재연되어야 한다.
3. 예배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고, 즉 그렇지 않다고 부르짖는 수백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은혜의 기쁜 소식이 진리라고 우리를 설득하시게 하는 행위다.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문장을 이해하는 것과,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말이 참이라면 어떤 기분일지를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갖게 되는 확신이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는 우리의 상상력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이야기 안으로 이끄는 예배다.

Ⅳ. 결론 – 기독교 예배의 서사 구조.

1. 역사적 기독교 예배는 회중을 네 장으로 이뤄진 이야기로 초대한다
“모임 ► 들음 ► 사귀 ► 보냄”

수 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기독교 예배의 서사 구조는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여는 ‘장’에 해당하는 모임은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오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환영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 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죄의 고백]의 시간은 거룩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롭게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이제 들음의 장으로 들어간다.

3.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만들고 우리 자신을 구속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얻는다.
4. 형성적인 예배를 위한 중심중의 하나는 시편이다.
하나님이 습관의 피조물이며 예전의 동물인 우리와 만나신다면, 이는 그분이 시학에 감동을 받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상력의 동물인 우리와 만나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편만큼이나 오래된 형성에 관한 핵심적 통찰이다.
5. 아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공과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V. 함께 기도하기

1. 우리의 예배가 정보나 지식이 아닌,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2. 모든 예배 순서 중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3. 속회안의 속도원들의 기도제목을 따라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VI. 숙제

제 5 과, (원 교재에는 6 과) “자녀를 잘 가르치라” 내용을 원 교재(책)를 통하여 미리 읽거나 설교를 통하여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